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 예배
이사야 11:6-9
2025년 12월 21일 오전 11시

메시아의 나라에 없는 것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나라에는 빛과 즐거움, 평강과 정의 등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허나 메시아의 나라에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나라에서 달라질 창조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사 11:6).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사자와 아이까지, 모두가 두려움 없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사 11:7).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생물에게 푸른 풀이 먹거리로 주어졌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창 1:30).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하여 땅의 모든 짐승, 사자와 표범과 이리에게도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육식은 대홍수 이후에 허락된 것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창 9:3).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암소가 두려움 없이 곰과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굽니다.

두려움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후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 3:8). 이러한 두려움은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연결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창 4:14).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가인과 같은 악인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혼들렸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창 12:12-13).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갯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허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이 된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속한 자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데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사 11:3).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삼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2 절). 메시아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둘째, 해함과 상함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9).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습니다.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으며, 폭력과 살인을 일삼던 악인들은 모두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사 11:4). 메시아께서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계 1:16).
예수님의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가지고 악인들과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계 2:16).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가지시고 세상 만국을 쳐부수십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계 19:15).

이 칼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양의 탈을 썼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는 악인들은 메시아의 나라에 살아 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나라에서는 거짓과 위선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사라진 세상, 의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 곳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셋째, 질투와 적개심입니다.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사 11:13). 에브라임은 애굽의 총리 요셉의 아들로 금수저 중의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에 반해 유다는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대상 5:1b-2).

또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현데 유다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 것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에브라임에게 주어졌지만, 왕권이 유다에게 주어진 것 때문에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은 르호보암 왕 때에 다른 지파들을 선동하여 다윗 왕조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까지 끊임없이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유다는 에브라임에게

적개심을 품고, 에브라임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형제 지간이었던 에브라임과 유다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현데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질투와 적개심이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질투하고 적개심을 품었던 유다와 에브라임이 연합하고 하나가 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짹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짹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겔 37:16-17).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분열이 극복되고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선포하신 말씀은 오직 하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행 1:3).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 생겨난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허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성탄절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결맞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을 선택하고, 폭력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며, 질투가 아니라 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성탄절에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결맞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